

‘6월 복귀’ 이의리 “급할수록 돌아가겠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이의리의 복귀 시즌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는 13일 미국 어바인 더 클럽하우스 베이스볼에서 2025 스프링캠프 6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비가 내리면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된 불펜피칭에서 이의리는 25개씩 2세트로 나눠 총 50개의 공을 던졌다.

이의리는 “공을 던질 때마다 강도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지 신경 쓰고 있다. 캐치볼 전에 메커니즘에 신경 쓰고 공을 던질 때는 강도만 생각하면서 던지고 있다”며 “트레이닝 파트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잘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리는 지난 6월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뺨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입원 때부터 안고 있던 고질적인 팔꿈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던 그는 오는 6월 복귀를 목표로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재활 단계인 만큼 이의리의 캠프 움직임에 대한 시선은 기대와 우려 두 가지다.

이의리 자신은 아직 던지는 느낌이 어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는 좋은 공을 던지면서 “역시 이의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려는 역시 몸상태다. 복귀 시즌인 만큼 완벽한 몸상태로 복귀하는 게 KIA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단계를 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찾아오면

수술 후 재활 중 캠프 합류

불펜 피칭서 공 50개 던져

통증없이 스케줄 소화 순조

서 재활 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치열해진 마운드 경쟁 속 팀의 우승 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이의리의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KIA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이의리는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정이 빨라 보이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마음이 급해지지는 않는다”며 “계속 정재훈 코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고 계셔서 잘 조절하면서 재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 없이 차근차근 피칭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이의리는 이날 ‘타자 경험’도 했다.

박찬호, 패트릭 위즈덤, 김도영, 김선빈이 이의리의 불펜 피칭 때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섰다.

이의리는 모처럼 타자들을 마주하며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이의리는 “긴장됐다. 오랜만에 타자 세우고 하는 피칭이 설됐다. 재미있었다”고 웃었다.

설레는 경험이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다. 김선빈이 이의리를 위해 타석에 바짝 서서 공을 지켜봐줬지만 긴장감에 자신의 공을 완벽하게 던지지 못했다. 위즈덤도 ‘이의리 경험’을 했다. 옆에서 이의리의 위력적인 공을 확인했던 그는 타석에서는 깜짝 놀라 공을 피하기도 했다.

위즈덤은 “옆에서 보는데 소름이 돋았다.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몸쪽에 붙었다. 볼은 좋아 보였다”고 웃었다.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13일 미국 어바인 더 클럽하우스 베이스볼에서 김선빈을 타석에 세우고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이의리는 “체험해 보고 싶어서 계속 선빈 선배한테 붙어달라고 했는데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 팔이 벌려졌다. 위즈덤에게 던질 때도 손목이 들어가 버렸다”며 “아직은 타자 세우 놓을 때는 아니다. 원래는 타자 세우고 하려면 1달 정도 남았는데 타자 선

배넛들이 봐주시면 좋다”고 오랜만에 타자를 마주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타자들의 도움으로 마운드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열정의 순간을 다시 떠올린 이의리는 다시 냉정함으로 재활을 이어갈 생각이다.

이의리는 “캠프에 와서 사람 많은 곳에서 같이 훈련하니 좋다. 밝아지는 것 같아서 좋다”며 “계속 피칭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겠다”고 복귀를 위한 여정을 이야기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변덕스러운 날씨, 이범호 감독은 바쁘다

또 비를 만난 이범호 감독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KIA 타이거즈의 어바인 스프링캠프에 날씨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다. KIA는 햇살 좋은 캘리포니아에 캠프를 차리고 2025시즌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뜨거운 경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날씨가 아쉽다.

13일에도 하루 내내 비가 계속되면서 KIA는 실내 연습장을 찾아 훈련을 진행했다. 야수조들이 실내에서 간단히 티배팅과 수비 훈련을 소화했고, 투수조는 웨이트 훈련으로 대신했다.

체계적으로 재활 단계를 밟고 있는 이의리는 실내 연습장으로 이동해 예정됐던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예년보다 어바인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에게는 훈련 스케줄 짜는 게 큰

야수조 실내서 티배팅·수비 훈련

투수조는 웨이트 훈련으로 대신

날씨 상황 살피며 다양한 구상

일이 됐다.

이들은 수시로 날씨 예보를 확인하면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하루 일정이 바뀌면 전체적인 캠프 준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특히 투수들은 차근차근 연습경기, 시범경기에 맞춰서 시즌까지 단계별로 투구 페이스를 끌어 올려야 하는 만큼 세밀한 계산을 해야 한다.

KIA는 13일부터 타자를 세우고 하는 라이브 피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비예보가

있었던 만큼 투수들의 훈련 스케줄을 미리 조정했다.

하루씩 훈련이 밀릴 것을 고려해 지난 12일 4조로 불펜피칭조를 편성했다. 이날 12명의 투수가 피칭을 하면서 불펜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현재까지는 KIA의 캠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도 하루이틀이다.

투수들이 워밍업을 끝내고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인만큼 날씨의 도움이 절실하다. 여기에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까지 떨어져 코칭스태프는 선수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비로 절반의 훈련에 그쳤던 KIA는 14일 휴식일을 보낸 뒤 15일 다시 훈련을 시작한다.

15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이범호 감독은 휴식날에도 날씨 예보를 살피면서, 다양한 구상을 하게 됐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BO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 열린다

북부-남부리그 1위팀 단판 승부 정규리그 3월 14일~9월 27일

올 시즌 KBO 퓨처스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진다.

2025 KBO 퓨처스리그가 3월 14일 개막해 9월 27일까지 계속된다.

퓨처스리그는 남부(KIA·상무·KT·삼성·NC·롯데)와 북부(한화·SSG·LG·두산·고양) 리그로 나뉘어, 팀당 118경기(상무 120경기)씩 총 650경기를 치른다.

605경기가 마무리된 뒤에는 북부리그 1위팀과 남부리그 1위팀이 단판 승부로 2025시즌 퓨처스리그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북부리그는 20차전(홈·원정 10경기), 상무를 제외한 남부리그는 18차전(홈·원정 9경기)을 갖는다. 상무는 16차전(홈·원정 8경기)을 소화한다.

인터리그는 상무를 제외한 남부리그는 6차전(홈·원정 각각 3경기), 상무 8차전(홈 5경기·원정 3경기), 북부리그 8차전(홈 3경기·원정 5경기)으로 편성됐다.

퓨처스리그 경기는 오후 1시 시작되며 서머리그 기간(7월 8일~8월 24일)에는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오후 6시 경기로 진행된다.

우천 등으로 경기 취소되면 다음날 더블헤더가 편성되며(3월, 6월 2일~8월 31일 제외) 해당 경기는 1·2차전 모두 7이닝 경기로 치러진다.

ABS(자동투구판독시스템)가 전 구장으로 확대 적용되며, 일부 구장에서는 체크 스윙의 비디오판독이 시범 도입된다.

체크 스윙은 타자가 투수의 투구한 공을 타격하려는 의도로 배트를 휘두르는 동작을 하고, 그로 인해 배트의 각도가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스윙 스트라이크 판정이 내려진다.

판독 기회는 2차례 주어지며 판정이 반복되면 기회가 유지된다. 연장전에는 1차례 기회가 추가된다.

9회 말이 끝날 때까지 동점 상황이 유지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회부터 승부처기가 실시된다. 타자는 이전 이닝 타순부터 타석에 들어서며, 주자는 해당 타석에 들어서 타자보다 선행 타순이었던 선수가 각각 1·2루에 배치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원팀’ 광주FC ‘기지개 켜다’

15일 안방에서 K리그1 수원FC 상대 시즌 개막전

‘노라조’ 조빈, 응원용품 선물·공연...경품도 푸짐

광주가 안방에서 승리로 2025시즌을 연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는 1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1 개막전을 연다.

광주는 지난해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를 치렀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정호볼’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적하면서 우려의 시선은 있지만 광주는 광주답게 높은 곳으로 향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휴식기에도 부지런히 2025시즌을 준비했다.

태국 코사무이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기초를 다진 광주는 박정인, 박인혁, 권성운, 민상기, 이재환, 헤이스, 유제호, 황재환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 작업도 진행했다.

또 미드필더 강희수와 골키퍼 김동화 등 ‘금호고 명맥’을 이을 루키들도 팀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을 거치면서 이정호 감독의 눈길을 끄는 ‘성장’도 있었다. 지난해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던 ‘광주 역사상 첫 준프로’ 김윤호가 철저부심하며

동계훈련 기간 이정호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고, 데뷔전에서 두둑한 배짱을 선보이면서 페널티킥을 장식했던 2년 차 문민서도 동료들이 주목하는 기대 자원이었다.

변준수, 김진호 등 지난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경험을 쌓은 자원들도 있다.

무엇보다 ‘경쟁’이 광주의 큰 무기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빈틈이 생겼지만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생겼다. 기회를 잡기 위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면서 알아서 내부 승상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안방을 찾는 수원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한다.

김은중 감독을 중심으로 파블로 사바그, 모하메드 오프키르, 르로이 아반다 등 새로운 외국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든든한 전력이 구축됐다.

광주의 개막전 승리 관건은 ‘원팀’이다. 새로 전력을 구성한 광주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겨우내 준비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경기감각 면에서는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지난 11일 산둥 타이산과의 ACLE 경기를 통해 이미 시

즌 첫 실전을 소화했다.

ACLE를 통해서 몸을 풀 광주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개막전부터 승점 3점을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한편 홈에서 2025시즌 축제를 시작하는 광주는 팬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도 준비했다.

광주 흥보대사 ‘노라조’ 조빈이 응원용 깃발 700개를 팬들에게 선물한다. 구단은 핫팩 3000개를 준비해 팬들을 맞는다.

광주는 하프타임 경품 추첨을 통해 삼성 에어드레서, 삼성 이동식TV, LG 공기청정기, 광주 주장단 셀카 촬영권 등을 증정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여수디오션 리조트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도 선물한다.

또 스트리트 댄스 동아리 SKIM, 노라조&광주 팬 합동 공연이 펼쳐진다. 장외에서는 선수단 사인회, 팬 참여 행사 5종, 하이트 진로 생맥주 시음회, 포토이즘 부스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두환 사진”으로 광주FC 조롱 중 산동 팬 도발 강력 대응할 것

“한국 국민 전체 비하하는 행위”...亞축구연맹에 항의 서한

광주FC가 산둥 타이산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산동 팬의 도발과 관련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주 구단은 “ACLE 7차전 원정 경기에서 산동 팬들이 관중석에서 원정 서포터즈석을 향해 전두환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펼치며 광주 팬들을 도발하는 행위를 벌였다”며 “이는 단순한 응원 방식이 아닌 광주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광주는 이에 아시아축구연맹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AFC 규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산동 타이산 구단과 팬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광주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산동 팬들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구단과 팬들을 향한 부당한 조롱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지난 11일 중국 지난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산둥 타이산과 ACLE 7차전을 가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